콜라겐 웰빙 족발·카페 같은 분위기…'여심' 꽉 잡았다

핫플레이스 요즘 이 아이템이 뜬다 | 천하제일왕족발 신림본점

참숯으로 구워 그윽한 향기가 물씬
고급약재 사용해 맛·건강 모두 만족
참숯깻잎양념불족발 젊은 입맛 잡아
하루에 300만원 웃도는 매출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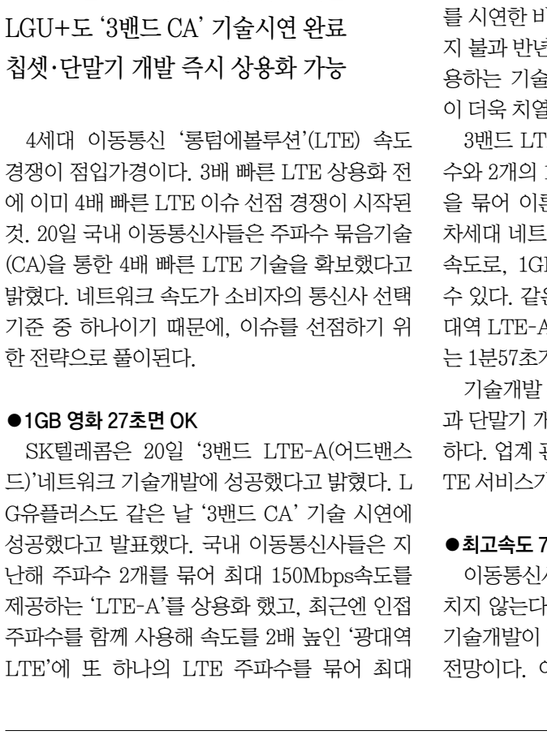
창업시장에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 먹을거리도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하는 '참살이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최근엔 특히 웰빙 바람을 타고 '웰빙 족발'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전문가는 "족발은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 많이 함유돼 있어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웰빙식품"이라며 "피부까지 생각하는 여성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겨냥한 '웰빙 족발' 창업이 줄을 잇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족발이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 큰 흐름을 탈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3유3무의 명품 족발…젊은층 여성고객 꽉 잡아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웰빙 족발'의 중심엔 온족발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천하제일왕족발(이하 천족)'이 있다. 천족은 외식 프랜차이즈의 선두주자 ㈜훌랄라(회장 김병갑)가 새롭게 론칭한 '족발카페' 형식의 신개념 족발집. 천족이 젊은층과 여성고객을 주 타깃층으로 삼고 기존의 시장 족발집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족발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 지하철2호선 신림역 인근에 위치한 천족 신림본점(점장 오성진·02-875-1300)은 기존의 차갑고 쫄깃하게 먹는 족발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따뜻하게 데워먹는 '온족발'로 승부하고 있다. 온족발은 살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 인기 만점이다. 특히 이곳에선 전통 참숯으로 족발을 요리해 그윽한 참나무 향기가 족발의 깊은 살까지 들어간 것이 큰 장점이다.


참숯깻잎양념불족발

천족의 족발은 '3유3무(3有3無)'의 비법으로 조리했다. 천족 오성진 점장은 "3유는 18가지 고급약재와 신선한 야채를 사용한 고급약재, 천족만의 '족물비법'으로 삶아낸 조합비법과 명인에게서 전수받은 조리비법을 담은 것을 의미하며, 3무은 연육제와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고급약재를 사용해 돼지 잡내를 없앴으며 훈증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기름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같은 족발집…달콤매콤한 참숯깻잎양념불족발 인기몰이

지난 13일 저녁에 찾아간 천족 신림본점은 오픈한 지 30분이 조금 지나자 1,2층으로 구성된 127m² (약 39평)의 16개 테이블이 손님들로 북적였다. 2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실버들까지 손님이 다양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곳에선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족발과 샐러드를 묶어 메뉴판을 구성했다. 콜라겐으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족발과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양상추와 양배추 당근 깻잎 등 채 썰어 만든 샐러드를 함께 한 메뉴로 내놓은 것. 예상은 적중했다. 젊은층들의 주문이 쏟아졌고 이 점포의 대표메뉴로 등극했다. 특히 참숯깻잎양념불족발은 최고의 인기메뉴. 풍성하게 올려진 향긋한 깻잎 슬라이스와 함께 매운 양념의 불족발은 마치 사우나의 냉온탕을 오가듯 오묘한 맛을 자아낸다. 이런 맛 덕분에 하루 매출이 줄곧 300만원대를 웃돈다고 한다.

천족 신림본점의 마케팅도 눈길을 끈다. 신림역 부근은 유흥가로 유명한 곳. 인근에 족발집도 적지 않다. 이 점포는 경쟁 가계를 이기기 위해 저녁 9시 이후부터는 다섯 가지 이브닝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생맥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칼국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한리필까지 해 고객들의 배를 두둑하게 해 준다. 포장고객에겐 3000원을 할인해 주는 마케팅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매장 콘셉트를 '족발카페'로 잡아 경쟁 가계와 차별화 했다. 실제 이 점포의 문을 열면 카페 같은 분위기에 음악까지 흘러나와 처음 오는 손님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한다. '족발카페' 분위기는 특히 여성 고객들이 맘에 들어 해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천족 프랜차이즈를 총괄하는 ㈜훌랄라 직영점 총괄 최정희 센터장은 "최근 족발전문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본사에서 메뉴를 단순화시켜 처음 창업을 하는 초보자도 점포 운영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서빙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인건비 로스를 줄여 이익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족발 프랜차이즈 천하제일왕족발(천족) 신림본점 임직원들이 점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근 창업시장엔 웰빙 바람을 타고 '웰빙 족발'이 새로운 트렌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천족은 참숯으로 구운 온족발로 젊은층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쫄깃하고 푸짐한 왕족발…술 한잔에 딱"

■ 고객들이 본 천족

김대현(24·직장인) "족발이 쫄깃하고 맛있어요. 기존의 족발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족발 못지않게 서비스로 나오는 칼국수에 반했어요. 양도 푸짐하고 맛도 있네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정다혜(27·회사원) "족발집이 아니고 멋진 카페에서 족발을 먹는 느낌입니다.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음식도 다 맛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로 주는 원두커피도 굿!"

임영철(48·회사원) "지인의 소개로 왔는데 족발 먹고 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족발이 샐러드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음식궁합이 참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아 일 끝나고 술 한 잔하기에 딱 좋은 곳이네요."

광대역 LTE-A보다 더 빠른 '4배 LTE' 나온다

SKT '3밴드 LTE-A' 네트워크 개발
LGU+도 '3밴드 CA' 기술시연 완료
칩셋·단말기 개발 즉시 상용화 가능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속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3배 빠른 LTE 상용화 전에 이미 4배 빠른 LTE 이슈 선점 경쟁이 시작된 것. 20일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묶음기술(CA)을 통한 4배 빠른 LTE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속도가 소비자의 통신사 선택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GB 영화 27초면 OK

SK텔레콤은 20일 '3밴드 LTE-A(어드밴스드)'네트워크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같은 날 '3밴드 CA' 기술 시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주파수 2개를 묶어 최대 150Mbps속도를 제공하는 'LTE-A'를 상용화 했고, 최근엔 인접 주파수를 함께 사용해 속도를 2배 높인 '광대역 LTE'에 또 하나의 LTE 주파수를 묶어 최대 225Mbps의 속도를 구현하는 '광대역 LTE-A'를 시연한 바 있다. 그리고 CA기술을 상용화 한지 불과 반년 만에 3개의 LTE 주파수를 묶어 사용하는 기술을 내놓으면서 네트워크 속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밴드 LTE-A는 1개의 광대역(20MHz) 주파수와 2개의 10MHz LTE 주파수 등 총 3개 대역을 묶어 이론상 최고 300Mbps의 속도를 내는 차세대 네트워크. 이는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속도로, 1GB 용량의 영화를 27초면 내려받을 수 있다. 같은 용량의 영화를 내려 받을 경우 광대역 LTE-A는 36초, 광대역 LTE는 55초, LTE는 1분57초가 소요된다.

기술개발 완료에 따라 3밴드 LTE-A는 칩셋과 단말기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말 최대 4배 빠른 LTE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속도 750Mbps까지 가능

이동통신사들의 LTE 속도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A기술을 통해 더 빠른 네트워크 기술개발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3밴드 LTE-A 기술개발로 4·5개의 주파수 대역을 연결하는 4·5밴드 LTE-A 기술개발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기술 표준상 단일 대역폭으로는 20MHz의 광대역 LTE가 최대다. 하지만 CA기술을 활용할 경우 광대역 주파수 5개를 연결해 이론상 최고 속도 750Mbps까지 구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4'에서 3개의 광대역 주파수를 연결해 최고속도 450Mbps를 내는 무선통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묶음기술(CA)을 이용한 4배 빠른 LTE를 발표하는 등 네트워크 속도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텔레콤 직원들과 장비제조사 직원들이 연구실에서 '3밴드 LTE-A'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달콤한 '카라멜 디저트' 기분전환에 최고

나뚜루팝·망고식스 등 카라멜 제품 선봬
크리스피 '솔티드카라멜' 달콤 짭짤 매력
패기파이 '카라멜 브라우니 라떼'도 인기

겨울철 기분 전환엔 달콤한 디저트가 딱.

자꾸만 몸이 움츠러드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음료업계에서는 겨울철 기분전환에 도움을 주는 달콤한 카라멜 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달콤한 음식은 행복감을 느끼는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겨울철 우울증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식음료업계가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을 맞아 기분전환에 좋은 달콤한 카라멜 제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나뚜루팝의 '솔티가 카라멜을 설레게 해'(왼쪽)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의 '크레이빙 카라멜 도넛'.

●나뚜루팝 '솔티가 카라멜을 설레게 해'

나뚜루팝에서는 겨울 신제품으로 '솔티가 카라멜을 설레게 해'를 선보였다.

카라멜에 솔티를 더해 카라멜의 달콤한 맛이 더욱 진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바닐라 맛과 카라멜 맛 아이스크림에 쫀득한 브라우니를 넣어 사르르 녹는 아이스크림과 함께 씹는 식감까지 살렸으며 폭신한 마시멜로가 포근함을 연상케 해 추운 겨울철에 즐기기 좋다.

●망고식스 '아몬드 카라멜 허니브레드'

망고식스는 커피와 잘 어울리는 디저트 '아몬드 카라멜 허니 브레드'를 선보였다.

허니브레드는 꿀과 버터를 바른 빵을 통째로 굽고 생크림 및 토핑류를 얹어 먹는 디저트다. 망고식스의 허니브레드는 달콤한 카라멜 소스에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한 아몬드를 토핑한 제품으로 달콤한 카라멜과 겨울철 건강에 유익한 견과류를 함께 먹을 수 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크레이빙 카라멜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크레이빙 카라멜 도넛' 4종 및 음료 2종을 한정 메뉴로 판매 중이다.

도넛은 카라멜 아이스드, 카라멜 넛츠 링, 크런치 솔티드 카라멜, 카라멜 커스터드 크림 등 총 4종으로 카라멜의 달콤한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달콤하고 짭짤한 솔트카라멜 맛이 특징인 '솔티드 카라멜 라떼'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솔티드 카라멜 블렌디드' 등 음료 2종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패기파이 '카라멜 브라우니 라떼'

패기파이는 부드럽고 달콤한 '카라멜 브라우니 라떼'를 출시했다.

카라멜 브라우니 라떼는 카라멜 본연의 달콤한 맛과 브라우니 특유의 진한 초콜릿 맛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카라멜과 초콜릿이 만나 풍부한 향미와 달콤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밀레 대표, 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맡아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의 한철호 대표이사가 2014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 대회 선수단장이 됐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밀레의 대회 공식후원식과 함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단장 임명식이 열렸다. 소치 장애인 동계 올림픽은 3월 7일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열린다. 한국은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등 5개 전 종목에 선수 27명, 임원 32명 등 5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밀레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착용할 1억 8000만원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지원한다.

휠라코리아 'FILA기초과학상' 제정 추진

휠라코리아㈜(대표 윤윤수·이기호)가 국내 과학기술분야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과학분야 발전을 돕기 위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박성현)과 'FILA기초과학상' 제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휠라코리아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한림원회관에서 윤윤수 회장과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FILA기초과학상'을 제정해 기초과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 과학기술자를 선발해 포상하게 된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력이 노벨상 수상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 과학자들의 노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